

지난해 광주·전남 지진 발생 크게 늘었다

15회로 연평균보다 1.7배 전국 규모 2.0 이상 115회 관측 이래 세번째로 많아

적으로 지진 관측을 한 1978년 이후 2016년 252회, 2017년 223회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광주·전남 지진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3회, 전남 31회로 연평균 8.8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의 연도별 지진 발생횟수는 지난 2014년 광주 0회·전남 5회, 2015년 광주 0회·전남 3회, 2016년 광주 1회·전남 4회, 2017년 광주 2회·전남 14회, 2018년 광주 0회·전남 15회 등이다.

지난해 광주·전남 지진은 내륙 2회(곡성), 해역 13회(여수·완도·신안)였다.

특히 지난해 광주·전남 내륙 지역에서

발생한 2회 지진은 연평균(1978~2017년) 0.8회,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이후(1999~2017년) 1.4회보다 많은 수를 기록했다.

최근 광주·전남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지만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진과 여진 등으로 인해 발생 빈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은 지난해 국민이 직접 진동을 느끼는 유감지진은 33회(포항 여진 20회 포함)로 연평균 10.6회보다 3배가 많았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횟수(10회)의 절반인 5회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2018년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2월 11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2017년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알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에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큰 단층이 없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지진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은 2001년 '1978~2000 지진관측보고' 이후 매년 4월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목록과 진앙분포도, 지진파형 등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김현경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 남구 칠석마을 고싸움놀이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남구 칠석동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린 제37회 고싸움 놀이 축제에서 칠석마을 주민들이 고싸움 시연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6일부터 3일간 열릴 예정이던 고싸움놀이 축제는 구제역으로 연기돼 30~31일 이틀간 진행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기초학력 부진 막으려면 초등 1~2학년이 가장 중요

교사 328명중 68% 꼽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은 기초학력 부진 예방을 위해선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기초학력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들이 지난해 10월 기초학력 지도 교원 328명(초등 254명, 중등 74명)에게 '기초학력 부진 예방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는 질문에 68.6%가 '초등 1~2학년'을 꼽았다. 이

어 교사 24.1%는 '초등 3~4학년'이라고 답했다. 기초학력 부진 예방을 위해서 중점 지도해야 할 영역으로는 51%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들었다.

교사들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를 위해 활용하는 자료는 기초 국어, 기초 수학 자료 49.2%, 교과 학습(국, 수, 사, 과, 영) 자료 32.6%, 한글 익히기 자료 16.4% 순으로 나타났다. 보충지도는 '방과 후'에 하고 있다는 의견이 56.3%였다. 보충지도 담당은 담임교사가 하고 있다는 의견이 52.2%였다.

설문에 응한 교사 93.3%는 기초학력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

차원의 진단도구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91.7%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주요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및 학습동기'와 같은 정서·행동적 문제, '주의집중 문제', '경계선지능 문제', '읽기 곤란 문제' 등이 지적됐다.

기초학력보장법안에 따르면 기초학력이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해당학년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에서 '평가기준 하에 해당하는 수준'을 가리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집회·시위현장에

안전진단팀 배치

'제2의 용산참사' 막는다

경찰이 집회·시위나 농성 현장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막고자 현장 안전진단 전문인력을 전국에서 운용한다.

경찰청은 "광주·전남 등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경비부서 소속으로 '집회·시위 현장 안전진단팀' 51명을 편성해 최근 발대식을 열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안전진단팀 구성은 지난해 9월 경찰청 인권침해해사진조조사위원회가 용산참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집회·시위 현장 등에 안전인력 배치를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안전진단팀은 소방·건축·토목 등 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경찰 임용 전 해당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관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대규모 집회·시위 등 경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현장 지휘관에게 안전 확보 방안을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와 일반 국민, 경찰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안전진단 방법과 절차 지침서를 제작하고, 전국 경찰서와 경비부대를 대상으로 안전대책 전반을 교육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진단팀을 통해 집회·시위 등 여러 현장에서 위험 예방과 안전을 위한 적정 조치를 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시민과 경찰 모두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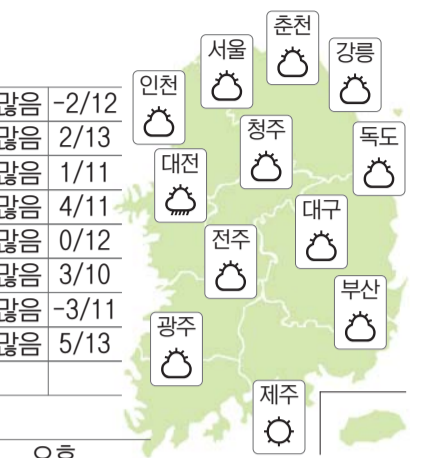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0 달뜨기 04:21
해질 18:53 달질 15:05

움츠린 아침

구름 많고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 낮겠다.

광주	구름 많음	2/12	보성	구름 많음	-2/12
목포	구름 많음	4/11	순천	구름 많음	2/13
여수	구름 많음	3/13	영광	구름 많음	1/11
나주	구름 많음	-1/12	진도	구름 많음	4/11
완도	구름 많음	4/12	전주	구름 많음	0/12
구례	구름 많음	-1/12	군산	구름 많음	3/10
강진	구름 많음	1/13	남원	구름 많음	-3/11
해남	구름 많음	0/12	흑산도	구름 많음	5/13
장성	구름 많음	-1/11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1.5	남서~서	0.5~1.0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	남서~서	0.5~1.5
남해 앞바다(동)	북서~북	0.5~1.5	남서~서	0.5~1.0
남해 앞바다(서)	북서~북	1.0~2.0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서)	북서~북	1.0~2.5	남서~서	1.0~1.5

◇ 생활지수

- 높음
- 뇌졸중
- 매우 높음
- 감기
- 보통
- 미세먼지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5:04	12:19
17:52	--:--	
여수	00:46	07:29
	13:33	19:25

◇ 주간 날씨

2(화)	3(수)	4(목)	5(금)	6(토)	7(일)	8(월)
☀	☀	☀	☀	☀	☀	☀
2/14	2/16	3/17	5/18	6/20	8/20	7/16

북부소방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평가 광주 1위

광주북부소방은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에서 광주시 5개 소방서 중 1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북부소방은 특히 전국최초 공동주택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119출동유도선(COLOR LINE)' 설치 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부소방서는 또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과 재난 약자시설의 안전한 겨울 나기 프로젝트 진행 등 다양한 안전시책

을 펼쳐 소방행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이 같은 공로로 이종환 북부소방서 소방장은 1일 광주시에서 선정한 '이달의 공무원상'에 선정돼 표창을 받는다.

북부소방 관계자는 "직원 모두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고민하고 실천한 결과물"이라며 "우수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진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 안전한 광주를 만드는 데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봄철 교통안전 주간...음주운전 등 단속강화

졸음운전 사고가 잦아지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다음달 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단속과 캠페인을 벌인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7일을 '봄철 교통안전 특별주간'으로 정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음주운전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경찰청이 집계한 최근 3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기온이 따뜻한 봄·가을철 졸

음운전 사고와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한다. 최근 3년 동안 4~5월 졸음사고 사망자는 52명, 대형교통사고 사망자는 30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고속도로 암행순찰차를 동원해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리형 태양발전소 분양

선착순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리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